高度文化國家건설의 理想

李 賢 宰
〔國立公園協會 會長〕

未來學者들은 다가오는 21세기가 西歐文化의 退潮와 東洋文化의 再評價로 이어지는 太平洋시대라고 豫斷한다.

이는 韓·中·日 三國을 軸으로 하는 東北亞에 의해 主導되리라하니 民族雄飛의 부푼 希望과 함께 우리의 國家理想을 진지하게 가다듬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直面하고 있다 할것이다.

東으로는 이미 世界의 經濟巨國으로 발판을 굳힌 1억2천만의 日本, 西로는 市場經濟原理의 새氣流를 타고 挑戰을 계속하는 12억의 中國, 北으로 여전히 軍事大國의 威勢를 견지하는 1억 5천만의 러시아가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地政學的與件속에 統一大業의 숙제까지 안고 있는 우리의 處地는 실로 벅찬것이 아닐수 없다.

克日이네, 克中이네 억지 生文字까지 동원하여 한갖 感傷的愛國論을 부추기는데 始終하는 一部 저널리즘에 분별없이 편승하지 말자. 우리의 選擇은 어디까지나 歷史를 敎訓삼는 "實事求是"의 것이어야 한다,

多角的인 國際협력의 틀속에 집단安保체제를 구축하고 經濟의 지속적인 安定成長의 土台위에 高度文化國家를 건설해 가야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象徵되는 北歐型 福祉국가는 이제 限界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過多한 사회보장비지출로 인한 턱없이 높은 擔稅率, 근로의욕과 創意性의 감퇴등 사회전반에 걸쳐 活力을 잃고 있는것이 역력하다.

우리 傳來의 美風良俗과 倫理道德으로 調律되는 한국형 文化福祉모델의 開發이 요청되는 所以다.

地球村이라 불리울 정도로 世界의 一體化가 진행되면 될수록 전통과 특수성이 投影된 自己確認이 있어야 한다.

찬란한 전통문화에 인류가 創案한 글자중 가장 科學的이라는 固有文字를 가진 우리 겨레다. 어찌 그뿐이랴! 중등교육以上학력 履修者의 平均人口가 세계 最上位圈에 랭크되는 韓民族이다.

格調높은 예술文化와 節度있으면서 人間的情理가 통하는 生活文化가 융합된 文化國家의 건설은 결코 허황한 꿈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엔 前提條件이 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수 있는 쾌적하고 생기찬 自然의 네트워크인 것이다.

우리 國土自然의 山河와 들판과 바다는 우리 文化의 母胎空間이요 마당이며 멍석이다. 오늘날 流行語처럼 쓰여지고 있는 身土不二라는 말도 결국 "地人相關의 法則"을 가리키는 것이다. 自然과 人間이 어울어져 文化를 낳는다는 意味 아니고 무엇인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自然의 보금자리, 향기높은 전통문화의 土壤속에 굳건하게 이룩되는 高度文化國家는 첫째 各界에리트의 불타는 使命感에서 우러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충대충식 適當主義, 얼렁뚱땅식 要領主義는 결코 발붙일수 없는 風土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절대다수 中産層이 文化國民의 隊列로부터 落伍되지 않겠다는 강한 連帶意識으로 國民的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문화의 나무를 심자" KBS라디오 '文化싸롱'프로그램에서 들려주는 시그날 뮤직 한귀절이다. 高度文化國家의 장중한 오케스트라가 울려퍼질 前奏曲이라 하고 싶다.